

보육산업의 발달과 휴먼터치의 변화

김성희(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서론

보육산업이 발달하면서 주로 주부의 일이거나 역할이라고 간주해왔던 돌봄 노동과 양육이 시장 상품과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보육 상품이 생산되고,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의 보육시설이 개발되었다. 종이기저귀, 조제분유를 비롯하여 0세에서 3세의 영유아를 돌보는 영아전담보육시설, 시간 연장 보육시설 등이 공공기관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에 의해 개발되어 돌봄 노동과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길먼(Gilman, 1972)은 이러한 돌봄 노동의 산업화는 여성들의 임노동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의 휴식처로서의 기능도 강화시키는 등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Strasser, 1982).

현재 과학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도구주의적 기술관으로 이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인간에 종속된 수단으로서 인간은 기계를 이용하여 편의를 추구하므로 기계와 다른 존재라는 것이다. 둘째는 기술결정론으로 기술은 인간의 경험을 결정짓는 제 1 원인으로 기술을 통해 인간은 경험을 확장시키며, 기술은 인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McLuhan, 1967; 김상호, 2008). 셋째는 페미니즘에서의 논의로 남성 주도하에 근대과학이 형성됨에 따라 여성은 과학인식론 성립 과정과 발달과정에서 소외되어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논쟁이 있다(김현희, 최문경, 2000; 금인숙, 2008).

첫 번째 도구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보육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은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수단으로 파악된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용이해지고 늘어난 소득으로 더 많은 소비와 여가를 즐길 수 있어 가족의 삶이 윤택해진 것은 보육기술의 발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맥루한(McLuhan, 1967)의 기술결정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확장은 인간의 발달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인간을 위축시키면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고도의 물질문명이 기계적 인간관계를 확대시키고 정신적 빈곤을 증가시키므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휴먼터치(human touch) 즉 공감과 감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페미니즘에 따르면, 과학은 권력의 문제이므로 여성이 과학기술의 세계에서 소외되어 온 것처럼 사회문화적 변동에 의해 유발된 권력의 불균형은 또다른 소외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데이비드 엘킨드(1999)는 근대 가족에서는 어머니의 개인적 성장에 대한 요구가 희생되었지만 포스트모던 가족에서는 아동이 보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균형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주

장한다. 아동은 보육상품과 서비스 보급 과정에서 소외되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미국에서조차 1980년대 초까지 보육시설에서의 유해성을 입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스티브 비델프, 2007). 영유아기의 경험이 성인기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신분석학 이론이 19세기에 생겨났지만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보육시설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보육시설이 아동의 애착 환경을 바꿈으로써 인간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지 않다.

과학기술의 결정론적 시각과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볼 때 보육의 산업화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아동 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편리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아동은 풍족해지고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켜갈 수 있지만 가족의 감성적 돌봄이나 인간접촉으로부터 소원해져 왜곡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보육의 산업화가 여성의 취업을 촉진시키기는 하나 모성을 약화시키고 아동에게는 애정의 결핍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도 경제적 생산성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이러한 역기능은 간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 산업이 아동에 미친 영향을 조명해보고자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보육의 산업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와 더불어 변화된 아동과 양육자와의 인간교류 과정을 휴먼터치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 연구결과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나타나는 인간관계 및 정신적 빈곤의 배경 일부를 설명해줄 것으로 보며, 아동이 처한 휴먼터치 결핍의 상황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체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제고시킬 것으로 본다.

2. 보육의 산업화 과정

전통사회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은 대가족제도 하에서 여러 가족원에 의해 이루어졌다(이명조, 2005; 18). 조선시대 민속화에서 아동은 어머니나 누이, 할머니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정병모, 2001; 국립중앙박물관, 2002 등). 소혜왕후 한씨(1988)는 모의장(母儀章)에서 ‘무릇 자식을 낳아 여러 어머니(諸母)와 마땅한 사람을 택하여 자식의 스승을 삼고자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조선시대에 자녀양육과 교육에는 친모 뿐 아니라 조모, 누이 등 여러 부녀자가 관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부녀자뿐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자녀양육에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몇몇 일기에서 엿볼 수 있다. 16세기 양반이었던 오희문이 기록한 ‘쇄미록’ 일기에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상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김성희, 2000). ‘위로 두 딸은... 내 항상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왔고... 아들놈은 성질이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기에 지난 해 초봄에 너무 과하게 매를 때린 것을 오늘날 생각하니 아무리 뉘우쳐도 어찌할 수가 없다.’, ‘단녀와 바둑을 두고 호도놀이를 하였다.’, ‘식사 후 인아, 단녀와 함께 지팡이를 짚고 뒷 봉우리에 올라 손수 고사리를 꺾어 가지고 왔다.’

할아버지가 손자양육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16세기 이문건의 체험적 육아일기인 양아록(이문건, 1997)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손자의 출생 시부터, 걸음마, 말을 배움 등의 성장과정을 관찰하

며 훈육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주가(主家)에 종속되어 일하던 유모나 노비도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였다. 사가(士家)에는 대부분 유모가 있었는데 이는 혼수품 제한과 분재기에서 알 수 있다(김성희, 1999). 세종실록에 “새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를 올리는 날..... 젓어미 1명, 몸종 2명, 남종 10명을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혼수인 유모 수를 제한하였다. 노비 분재 시에는 자녀별로 노비를 분재하면서 1자녀 1유모 혹은 2자녀 1유모가 책정되기도 하였다(김용만, 1996:62). 유모 외에 어린 비자도 주가의 자녀를 돌보았던 것을 미암일기에서 볼 수 있다. 미암일기 계유년 8월 28일에 “밤 세시에 소비(小婢) 돌금이가 딸 방의 문 밖에서 숙직하다가 잠자던 중에 잘못 마당으로 나가 떨어져 머리가 장독에 부딪쳐 깨지는 바람에 온 집안이 놀라 살펴보았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양반이 아닌 상민이나 천민도 소유할 수 있었다. 1630년 경상도 산음현의 경우를 보면 상민의 39%, 천민의 9%가 노비를 소유하였다. 양반의 노비소유 비율은 더 높아 1807년 경상도 월성군 양좌동에서는 전가구의 74%를 차지하는 양반이 모두 1인- 2인의 노비를 두고 있었다(최재석, 1983). 노비 중 아이돌보기를 주로 하였다고 추정되는 여성 비의 비율은 1807년 양좌동 호적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노비를 둔 가구 중 비(婢)가 없는 가정은 1.5%에 지나지 않고, 78%가 1-4인의 비(婢)를 소유하고 있다(김성희, 1999). 대부분의 양반 가족에는 아이를 돌보는 여성 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사회에서 자녀양육은 가정 내 어머니 뿐 아니라 할머니, 누이, 아버지, 할아버지, 노비, 유모 등 가족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아동은 이들의 돌봄 속에서 양육되었다. 사회화된 돌봄 노동은 서당 선생이 교육을 맡는 정도가 유일하였는데, 이는 양반의 아들에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대부분의 아동은 여러 가족원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교육을 받고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들어 노비제도가 사라지고 산업화로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면서 아이돌보기와 가사는 전적으로 집에 남아 있는 여성, 주부의 일이 되기 시작하였다(Cowan, 1983). 핵가족화로 조부모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졌고 학교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손위자녀도 양육을 도울 수 없게 되었다. 부족한 가족의 조력을 대신해서 가정부를 고용하기도 하였는데 1968년 김분옥 외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가정고용인 비율은 60% 정도였다. 상류층의 90%, 중층의 58%, 중하층의 29%가 가정고용인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960년대 무렵까지는 가정 내의 돌봄 노동은 주부와 가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가정부 인력은 공장노동자로 유입되고 가정부의 고용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1989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 주부의 14.3%만이 가정부나 파출부를 고용하고 있었다(이승미, 1989). 가정고용인의 공급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현모양처를 여성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도 가정고용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켰다. 사회적으로 가정고용인을 고용하는 것은 사치한 것으로 비난을 받았고 정서적인 면에서 살림은 주부가 사랑과 정성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김성희, 1999).

1960년까지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6.8%에 지나지 않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대부분 저임금을 받는 생산직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산층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

정에서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였고,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열은 사회적으로 치맛바람으로 경계될 정도로 커지기도 하였다.

여성의 주된 역할이 가정에서 자녀를 사회화시키고 가족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었지만, 무보수의 가사노동으로 주부의 사회적 지위가 낮게 평가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 26.8%에서 1970년 38.5%, 1980년에 41.6%, 1990년 47.0%, 2000년 48.8%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통계청, 2010).

가정부 인력이 감소하고 주부의 취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육아와 관련된 돌봄 노동이 산업화되기 시작하였다. 1965년 국내에서는 처음 S사에서 조제분유를 생산하였고, 이어 1967년에 N유업, 1972년 M유업에서도 조제분유를 생산하였다(박승용, 2003). 이어 1983년에는 Y사에서 국내 최초로 테이프 형 아기기저귀를 출시하였다(유한킴벌리, 2009). 아기 옷도 1979년 전문 업체 A가 설립되어 상품화되었다(매경이코노미, 2004).

보육시설의 경우 초기에는 빈민 구제 사업으로 탁아소가 시작되었다.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 복지관에 탁아프로그램이 개설된 이래 탁아소가 증가하였지만 1950년대까지는 임시 구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1년에서야 탁아시설의 설치기준이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수탁아동이 증가하면서 1978년에는 보육시설을 중산층의 일반아동에게도 개방하는 '탁아시설 운영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김지현, 김수희, 김정숙, 2008). 1980년대 후반 기혼 취업여성의 급증으로 도시 저소득층 아동과 농어촌 지역아동의 방치 문제가 대두되자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분리되고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었다(이명조, 2005). 1990년에 설립된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은 1,919개였지만 2007년에는 30,856개로 증가하였고, 이용 아동 수는 1990년 48,000명에서 2007년에는 1,099,933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7, 2008).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시행된 후에는 취업여성의 일 가정을 양립시키려는 야간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과 같은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아동은 더욱 증가하고, 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양육자의 편의와 아동의 소외

보육 산업은 아동의 필요나 건강한 발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유제품의 경우 아기 성장에 유익한 칼슘을 다량 함유한 완전식품으로 모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아왔다. 아기에게 이상적인 음식은 아기의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돕는 모유이지만(신영희 외 5인, 2009), 양육자는 별다른 의심없이 유제품을 먹고 있다.

이처럼 유제품이 영양식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티에리 수카르(2009)에 의하면 낙농업계의 선전 활동과 로비 활동의 결과라고 한다. 우유 가공산업은 제1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에게 통조림식 유제품이 제공되면서 수요가 급등하여 발전했고 전후에 기업들의 판촉 목표는 유아에게로 옮겨갔다고 한다. 어릴 때 얻은 식습관은 평생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산업계로서는 전략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판매 공약을 세웠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S사는 조제분유 생산 초기에 “애기가 아주 튼튼하군요. S분유를 먹이신다죠? 네 처음부터 쭉 S분유를 먹여왔는데요 소화도 잘되고 아주 좋아요(광고정보센터, 2010).”라고 유제품의 유익성을 홍보하였다. 현명한 어머니는 아기의 건강을 위해 유제품을 선택한다는 광고까지 했었는데 1980년대 M사는 다음과 같이 유제품을 광고하였다. “엄마 젖이 뭍어지면 M...뭍 먹어서 이렇게 잘 키웠나, M을 먹여서요...너 키울 때는 멸치를 갈아먹였지, 요즘엔 M에 다 들어 있어요, 요모조모 따져보고 M으로 바꾸었어요. 똑똑한 엄마 두어서 넌 좋겠다(http://cafe.naver).”

유제품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암과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티에리 수카르, 2009).

우유는 아기를 위해 만들어진 식품이 아님에도 ‘모유의 맛, 모유의 영양’을 갖고 있고 ‘분유에 영양성분이 더 풍부하다’는 오해와 ‘엄마 뭍매가 망가진다’는 등의 편견 때문에 그리고 수유의 간편성 때문에 선호되었다. 특히 직장인 여성은 출산 후 모유 수유를 길게 하고 싶어도 일터로 복귀한 후에는 모유수유가 어렵기 때문에 조제분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테일이안, 2010).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이 겪는 불편과 모유가 아기 성장에 좋은 점은 다음의 한 여성의 기술에서 잘 대비되어 나타난다.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먹으며 심지어 밤에도 ...먹이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야 했던 것, 분유를 먹이는 경우 아빠가 밤에 분유를 타 먹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다. 모유수유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화장실에서 먹인 적도 있었다. 또 젖이 들고 가슴이 커지고... 처녀 적과 비교하면..가슴이 커진 게 좀 불만족스럽다.” 그러나 좋았던 점은 “지금까지 잔병치레 한번 없었으며 나이에 안 맞게 각쟁이라는 등 어른들의 칭찬도 많이 들었다. 모유수유 중 아이를 보고 있으면 참 좋다 교감도 나눌 수 있어 좋았다(네이버 지식 iN, 2005).” 모유는 아기에게는 좋은 식품이지만 양육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므로 조제분유가 선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완전 모유수유율은 23.1%에 지나지 않는다. 조제분유 수유 이유는 '모유량이 부족하거나 안 나와서'가 54.2%, 유두 함몰 때문이 2.6%로 대부분 모체의 문제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 직업 때문에 8.7%, 분유가 더 좋다고 들어서 3.4%, 병원에서 먹여서 4.0%였고, 아기 건강 때문에는 10.3%에 지나지 않았다.

종이기지귀의 경우도 초기 생산회사인 Y사가 출시하였을 당시에는 ‘아기가 위생적으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성인보다 피부가 연약한 유아는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쉽게 받기 때문에 가공섭유가 위생적일 수는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공섭유에는 실용성과 촉감의 개선, 고기능성의 부여를 위해 1200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된다. 특히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는 세탁이 불가능하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감소되지 않아 유아에게 치명적인 의류장애가 생길 수 있다(신정화 외 3인, 2004). 또한 종이기지귀는 오랜 시간 착용 가능하므로 아기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그 유해성은 다음의 글에서 엿볼 수 있다.

“천 기저귀는 그야말로 오줌이 몇 방울만 묻어도 갈아달라고 울어대니 밤에도 두어 시간 이어서 푹 잘 수가 없다. 세탁기로 빨다고 해도, 삶아야지, 털어서 널어야지, 또 반듯하게 개켜야지 손

이 얼마나 많이 가는가 말이다. 언젠가 TV에서 종이 기저귀 광고를 보다가 '다섯 번까지 적셔도 문제가 없어요.' 하는 내용을 보고 어이없던 적이 있다. 아이가 다섯 번이나 오줌을 싸면서도 깨지 않고 폭 자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 천 기저귀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다섯 번은 커녕, 조금만 오줌이 묻어도 바로 갈아달라고 징징 거린다(<http://blog.naver.com/40035580205>)“.

종이기저귀가 아기보다 어머니의 세탁편의를 위해 선택된다는 것은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내가 쓰레기 운동하는데도 아내에게 먼기저귀 쓰자고 하면 반대한다. 일일이 못 빨면 세탁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다른 집 물건들과 함께 세탁되는 게 싫다는 것이다(오마이뉴스, 2008).” 종이기저귀도 아동의 요구보다는 양육자의 편의가 더 많이 고려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초기에는 빈민구제사업, 구호사업으로 시작되어 소외 계층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반 아동을 교육하는 시설로도 이용되어 왔다. 프로이드(Freud), 피아제(Piaget) 등의 심리학자들이 영유아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블룸(Bloom, 1964)과 같은 교육학자는 유아기에 성인지능의 80%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이명조, 2005; 김제한, 1998). 1970년대 이후에는 몬테소리 프로그램, 개방주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프로그램, 레지오 에밀리아 프로그램 등이 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도입되어 유아 교육을 발전시켰다(김영옥, 2009).

어머니들은 특히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다음의 한 어머니의 글에서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난다.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 놓고 소풍이나 견학만 가면 온갖 불길한 상상을 해대며 맘 졸였드랬죠... 그런데 ... 무엇보다 엄마가 높아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또래들이랑 어울리는 거 보면 정말 신나하더라구요.”(네이버 지식iN, 2007).

보육에서의 전문적 교육은 아동의 인지능력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었지만 애착이론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은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고려하는 것 같지 않다. 에인스워스(Ainsworth, 1978)에 따르면 0세에서 3세는 애착이 발달하는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에 안정적 유대가 형성되지 못하면 아동은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어렵다(이명조, 2005). 엘런쇼어(2003)는 사랑으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아이의 두뇌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 영유아기는 모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나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은 1999년 54개에서 2008년 665개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용 아동수도 1999년 2,026명에서 24,398명으로 거의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신생아만 보더라도 2009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어머니가 주로 양육하는 경우는 88.1%였고 양육기관이 양육하는 경우도 6.8%를 차지하였다(우남희 외 3인, 2009).

보육시설에서 보육시간은 기본적으로 12시간으로 아동은 매우 긴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다. 가족과의 접촉 단절을 의미하는 보육시간은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더 길어서 12시간 이상 14시간 운영하는 곳도 62.5%나 된다(송혜린, 2009). 24시간 보육시설, 시간연장 보육시설, 휴일 보육시설 등 보육서비스가 다양하게 발달할수록 아동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은 더욱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백지혜(2008)의 연구에서 보육의 양은 영아의 어머니와의 애착안정성과 부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상호작용 경험이 적을수록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민감성을 떨어 뜨려 영아와 어머니간의 안정된 애착 형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장시간 시설 이용이 결코 아동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육시설 입소 아동은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48,000명에서 109만 여명으로 거의 23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0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에 48.4%에서 2008년에는 50.0%로 1.6%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보육시설은 취업여성 뿐 아니라 전업주부에게도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 10세 이하 자녀 양육 실태를 보면 전업주부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85.0%로 15.0%는 부모 이외의 양육자에 의존하였다. 보육시설 종일제에 3.0%, 보육시설 반일제에 8.5%, 학원에 28.7%, 방과후 교실에 2.4%, 유치원에 14.4%를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2005). 2009년 우남희 외 3인(2009)의 조사에서는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71.7%가 영유아기를 사교육을 시키기에 적당한 시기로 보았다.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은 신생아부터 매우 높으므로 전업주부의 영유아도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교사 당 아동 비율이 높아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 권혜진, 이순형(2001) 연구에 의하면 소집단의 보육교사는 대집단의 보육교사보다 영아에게 쓰다듬기, 웃기, 신체적 보살핌과 같은 공감적 상호작용과 개별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교사가 책임지는 아동 수가 적을수록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교사의 아동에 대한 무관심한 반응의 실태는 다음의 한 어머니의 상담에서 잘 나타난다. “우리 아이 어린이집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 현재 3살 이구요. 3세는 점심 먹고 1시경이면 다들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원에서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갸름하게 아이들 다들 자고 우리 아이만 울고 선생님은... 우리 아이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등... 다른 아이들도 잠을 못 잔다는 등, 그때부터는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걸 거부하기 시작하였고,,,아이는 한 쪽에 앉아 혼자 울고 있고, 선생님은 커피마시며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 나누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이는 구석에 혼자 앉아 영영 울고 있고 선생님은 창밖 바라보며 감상에 빠져있고, 엄마 욕심에는 아이가 울며 안아주고 달래주고 선생님이 아이 데리고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고픈데 그런 모습은 보질 못했네요(네이버 지식iN, 2008).”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교사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마라면 누구나 짐작하듯이 24개월 미만 영유아 5명을 교사 한 명이 '제대로' 돌보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하다(http://blog.naver.100091356057).” 보육교사들이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기의 눈짓이나 웅얼거리는 소리와 같은 미묘한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스티브 비덜프(2007)는 아무리 훌륭한 보육시설이라도 아기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으므로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한다고 주장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아동은 집단이 커질수록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권혜진, 이순형, 2001). 집단이 커질수록 아동은 또래와 욕구충족을 위해 경쟁하게 되면서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스티브 비덜프(2007)는 점점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의 약

물문제, 정신적 문제들이 이러한 보육환경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내에서도 중고등학생의 우울감 경험은 2005년 29.9%에서 2007년 41.3%로 증가하였고(질병관리본부, 2005, 2007), 2006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선별검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25.8%가 정서나 행동에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에이블뉴스, 2006). 청소년(20-24세) 음주율은 1995년에는 74.3%였지만, 2008년에는 80.8%로 증가하였고, 동 연령대의 흡연인구비율도 1995년에는 63.0%였지만, 2008년에는 72.9%로 증가하는 등 아동 청소년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 2009).

이런 문제 외에도 보육시설에서는 양육자가 쉽게 바뀌기도 하므로 아동은 교사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 백지혜(2008)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변경회수가 0회인 영아의 애착안정성 점수가 2, 3회인 영아보다 높아 보육의 안정성과 애착 안정성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육자가 바뀌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아동은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스티브 비덜프(2007)는 주장한다. 1980년대 이후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기에 이른 현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은 이러한 추론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90년에서 2008년 사이에 8건에서 6.6건으로 감소하였고 1인 가구는 1985년 전체 가구 중 6.9%에서 2008년에는 20.1%로 증가하였다(통계청). 가족관계의 변화가 양육환경과 관련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보육시설이 아동과 청소년 발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육시설 이용은 증가추세에 있다. 2005년도 조사에서 1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2002년 86.4%보다 적은 83.1%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05). 아동이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휴먼터치의 공감 속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아동은 보육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수 가족원의 돌봄에서 어머니의 돌봄으로, 어머니에서 보육교사로 점점 더 친밀한 인간접촉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휴먼터치의 결핍과 대체보육의 필요성

모성의 보살핌은 여성의 자연스런 욕구이면서 아동이 성장한 후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므로 사회를 하나로 묶어 주는 힘이 된다(샬리 테일러, 2008). 이런 모성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 2005년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의 미취업사유는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양육과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가 49.1%, ‘일을 하고 싶으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가 29.7%였다.

여성이 취업하지 않고 자녀를 돌볼 경우 아동들은 취업 여성의 아동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을 비교해 보면 취업주부는 가족보살피기에 2시간을 사용하고 전업주부는 4시간 6분을 사용하였다(이영환, 이수재, 2007).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보살핌을 대략 두 배나 더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모성으로 인해 아동은 가장 적합한 보살핌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돌봄 노동이 시장상품 또는 공공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모성도 약화되고 있다. 어머니들은 더 이상 자녀를 위해 기꺼이 애정을 지속시키려 하지 않는다. 자녀양육시기에 해당하는 30-34세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3년에는 33.1%였지만 2006년에는 53.1%로 증가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4; 통계청, 2007). 가족이나 돌봄이라는 공동체적 가치보다 사회적인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우선시 하면서 24시간 보육시설, 야간 보육시설 설립 등 시설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 어머니 역할은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취업자가 되어 산업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수지 라인하르트(2010)는 모성본능은 사회가 지어낸 허구이며 엄마로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미화된 거짓말이라고까지 주장한다.

전문적 보육기술과 지식이 발달하면서 모성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감소되고 있다.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함에 따라 부모들은 전통적 보살핌이나 양육방식에 자신감을 잃고 모성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호분(2009)은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아이를 병들게 하므로 ‘차라리 자녀를 사랑하지 마라’고 적절히 무관심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의 사회성, 독립성 발달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어머니의 양육보다 또래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아동발달에 유익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해리스(Harris, 2009)는 부모의 영향력이 아동발달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비판하고 또래집단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양육가설을 주장하여 극단적으로 부모의 무관심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모성이 약화되면서 아동은 애정 공백을 전문가와의 상담, 컴퓨터 게임과 같은 시장상품 또는 공공서비스로 메우고 있다. 청소년 상담센터의 경우 2001년 111개소에서 2006년에는 142개소로 증가하였고, 개인상담 인구는 2001년 59,068명에서 2006년에는 131,758명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1, 2006).

전문적 상담을 통해 아동 청소년은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지만 상담은 문제의 치료에 초점을 두므로 인간접촉에는 한계가 있다. 상담자는 초반부터 종결날짜를 명백히 인식시켜 주는 것을 종결기술로 교육받으므로(이윤로, 2007), 상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장기적인 일상의 인간 교류는 권장되지 않는다.

아동들은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서도 심리적 안식을 얻고 인간접촉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탐닉은 오히려 현실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교우관계를 더욱 단절시키고, 대인 관계를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2008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10시간 넘게 컴퓨터를 하는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14.3%(103만 5000명)에 이르고 있다(인터넷과학신문, 2010. 01). 휴먼터치가 없는 인간교류는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정서적 교류를 갖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휴먼터치의 가치가 부상하는 것은 이 같은 테크노피아(Technopia)가 초래하는 정서교류의 외면, 충성도의 감소, 정신적 빈곤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휴먼터치란 인간적인 관심과 서비스를 말하며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2000)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는 좀 더 많은 상호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하이터치의 사회가 된다고 예견하였다(홍석표, 2008). 이

러한 휴먼터치 추구를 배경으로 기계적 요소에 인간적 요소를 더한 스토리텔링 등의 문화산업, 환경과 조화되면서 인간성을 존중하는 친환경적 기술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개발된 로봇손이라는 상품은 이역만리에서도 컴퓨터로 연결된 손목밴드로 가족의 손을 대신 잡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 휴먼터치를 극대화시키고 있다(인터넷과학신문, 2010.04).

기술결정론에 따르면 인간은 기술을 통해 경험을 확장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조해서 다시 기술을 확장시켜간다. 보육 산업의 경우도 보육 상품과 서비스는 인간 경험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다시 새로운 보육시스템을 만들어 보육 산업과 함께 진화해 간다고 볼 수 있다. 보육시설 아동의 인간접촉 결핍이라는 문제는 결국 휴먼터치가 강화된 새로운 보육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는 모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면서 동시에 아동에 대한 인간적인 관심과 서비스 즉, ‘휴먼터치(human touch)’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보육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의 비판에 따르면 지금까지 과학은 권력자의 논리에 의해 자연과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과학의 수혜에서 배제해왔다. 현재의 보육 산업은 아동을 개발 대상자,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파악함으로써 수혜자에서 소외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페미니즘이 여성 경험 중심의 새로운 대체 과학을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듯이 앞으로는 성인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 아동의 상품화에 맞서는 새로운 친아동적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의 욕구에 의거하는 보육 산업, 아동의 발달을 우선 고려한 보육시스템, 아동의 발달에 대한 책임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생명을 복돋우는 체험적 지식이 산업화될 때 아동에 대한 휴먼터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육 상품 및 서비스가 아동에 미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동과 가족의 휴먼터치가 저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체보육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육시설 내에 가족방을 마련하여 아동과 가족과의 만남을 자유롭게 하거나, 보육시설에서도 부모의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 만들기를 생각해볼 수 있다. 특정 연령 이하의 영유아는 야간 보육시설, 24시간 시설 이용을 제한하면서, 부모 휴직을 의무화하고 대신 이 기간 중의 소득과 직장복귀를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연령 이하 아동을 둔 가족의 가족시간 확보를 위해 저녁 및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제한하면서 이를 아동수당으로 보전하는 프로그램, 보육교사의 감성서비스에 대한 자질도 중요하므로 감성서비스를 교육하는 과정의 운영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보육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보급되기 앞서 이를 아동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가족과의 직접적인 휴먼터치가 불가능한 상황의 아동을 위해서는 로봇손처럼 가족의 애정기능을 보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언제든지 접촉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때 가족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로봇이 보육시설에 보급된다면 아동의 결핍된 휴먼터치가 어느 정도 보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광고정보센터. (2010). <http://www.adic.co.kr/ads/list/showNaverTvAd.do?ukey=85941>.
- 권혜진, 이순형. (2001).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학 회지, 22(4), 201-212.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1). 청소년백서.
- _____. (2006). 청소년백서.
- 국립중앙박물관. (2002). 조선시대 풍속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국민건강영양조사. (2007). <http://knhanes.cdc.go.kr>.
- 금인숙. (2008). 생명과학에 대한 여성주의 성찰, 담론201, 10(4), 133-166.
- 김분옥, 장명옥. (1968). 우리나라 주부의 부업 관리율. 대한가정학회지, 제6권, 959-971.
- 김상호. (2008). 맥루한 매체이론에서 인간의 위치: 기술우선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학 연구, 8(2), 84-121.
- 김성희. (1999). 가사노동의 변화: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49-158.
- _____. (2000).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 18(4), 13-23.
- 김영옥. (2009). 한국 유아교육, 보육 프로그램의 동향 및 과제. 아동교육, 18(3), 55-68.
- 김용만. (1996). 노비생활.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 김제한. (1998). 발달심리학. 서울: 양서원.
- 김지현, 김수희, 김정숙. (2008). 보육학개론. 서울: 학현사.
- 김현희, 최문경 (2000). 과학기술의 발달과 여성-과학, 기술, 컴퓨터 그리고 사이버 공간-, 정보와 사회 제2호, 1-33.
- 네이버 지식iN (2005. 4. 6). 모유로 아기를 키우신 분과 분유로 아기를 키우신 분들 인터뷰좀 해 주세요.
- _____. (2007. 2. 15). 아이 처음으로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로써 저와 같은 심정이신 이셨 던 분 있나요?
- _____. (2008. 11. 26). 아이 어린이집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 데일리안 (2010. 2. 17). 올바른 모유 수유로 건강하고 똑똑하게 아기 키우기.
- 데이비드 엘킨드 저, 이동원, 김모란, 윤옥경 옮김. (1999). 변화하는 가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매경이코노미 (2004. 07. 07). 25세 청년 기업들 - 아가방.
- 박승용. (2003). 우유생산과 가공, 유한문화사.
- 백지혜. (2008). 영아의 보육의 안정성, 시작시기, 양과 애착안정성 간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16(1), 195-212.
- 보건복지가족부. (2007).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_____. (2008). 보육통계.

- 셀리 테일러, 임지원 옮김. (2008). 보살핌은 ‘착한 본능’사회를 묶는 따뜻한 끈. 서울: 사이언스 북.
- 소혜왕후한씨, 이계순 교주. (1988). 내훈. 서울: 백양출판사.
- 송혜린. (2009). 가족친화적인 환경으로서의 직장보육시설. 한국가정관리학회 2009년 제 46차 추계학술대회: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93-99.
- 수지 라인하르트, 강혜정 옮김. (2010). 난 죽을 때까지 여자로 산다. 성균관대출판부.
- 스티브 비델프, 이승희 옮김. (2007).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라. 북섬.(Steve Biddulph, Raising Babies 2005. Harper Collins).
- 신영희, 김태임, 김현실, 심미경, 이혜정, 홍미령. (2009). 아동간호학. 서울: 양서원.
- 신정화, 윤혜은, 박미애, 안윤경. (2004).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의 유해성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28(1), 165-171.
- 앨런 쇼어. (2003). 정동 조절과 자아 회복. 노턴.
- 에이블뉴스 (2006. 8. 5). 초등학생 정신건강 심각.
- 오마이뉴스 (2008. 8. 28). “1회용 제품 가격 올리자, 품질도 올리자”.
- 오희문. (1990). 쇠미록. 해주오씨추탄공파종중.
- 우남희, 김영심, 이은정, 김현신. (2009). 저 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한국 어머니들의 인식 및 실태 조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297-325.
- 유한김벌리 (2009). 지속가능성보고서, 사람이 희망이다.
- 이명조. (2005). 영유아발달과 교육. 서울: 양서원.
- 이문건 저, 이상주 역. (1997). 양아록. 서울: 태학사.
-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이수재. (2007).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10(1), 19-25.
- 이윤로. (2007).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학지사.
- 이호분. (2009). 차라리 자녀를 사랑하지마라, 서울: 팜파스.
- 인터넷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 (2010. 04. 15).
_____ (2010, 01, 21).
- 정병모. (2001). 한국의 풍속화. 서울: 한길아트.
- 존 나이스비트 저, 안진환 역. (2000). 하이테크 하이터치. 한국경제신문사.
-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2007). <http://healthy1318.cdc.go.kr>.
-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사연구. 서울: 일지사.
- 통계청 (2010). <http://www.kostat.go.kr> .
_____ (2009). 한국의 사회지표.
_____ (2007). 200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_____ (2005).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_____ (2000). 한국의 사회지표.
- 티에라 수카르, 김성희 옮김. (2009). 우유의 역습. 서울: 알마.
- 한국여성개발원 (199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 홍석표. (2008). 황금열쇠의 비밀. 서울: 솔로몬북.
- Cowan, Ruth Schwartz. (1983). *More Work for Mother*, New York: Basic Books: 김성희 외 4인 공역(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서울: 학지사.
- Gilman, Chalotte Perkins. (1972). *The Home:Its Work and Influenc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Harris, Judith Rich. (2009). *The Nur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Freepress.
- Strasser, Susan M. (1982). *Never Done: A History of American Housework*. New York: Pantheon Books.
- <http://cafe.naver.com/maeillove/15438>.
- <http://blog.naver.com/don3123/40035580205>.
- <http://blog.naver.com/pink1969/100091356057>.